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신 혜 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을 기반으로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진로동기의 하위요인들(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이 각 잠재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프로파일 1은 '진로행동적응' 집단, 프로파일 2는 '진로행동미분화' 집단, 프로파일 3은 '진로장애극복', 프로파일 4는 '진로행동혼돈' 집단, 프로파일 5는 '진로행동고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 분류에 대한 진로동기와 성별, 학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동기의 하위 요인 중 진로정체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도 집단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학년도 일부 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진로동기,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 E-mail : hjshin@snut.ac.kr

서론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다. 중,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진로를 탐색하여 결정하는데 머물지 않고 결정된 진로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행동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민정, 양현정, 2015).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은 입학 후의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소위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여기에는 진로선택 및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되는 학점 및 영어점수 관리나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진로결정 및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명옥, 박영숙, 2012).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김봉환, 1997; 김선중, 2005; 이재창 외, 2007). 즉,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가 있다면 수립된 진로 목표를 이루고자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김명옥, 2012; 김봉환, 1997).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의 이해는 인지나 태도 차원에서만 진로의 준비도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측면에서 이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강희순, 2010; 김봉환, 1997).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성숙하다고 해도 실제 준비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명옥, 박영숙, 2012).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봉환, 1997).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직업의 현황, 전망, 취업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 환경 등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예컨대, 목표로 삼은 진로 및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교재를 구입하는 일이 포함된다. 셋째는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확보된 도구를 활용하고 시간을 투입하여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다. 직업 및 진로에서 요구되는 도구를 구비했다라도 준비행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진로준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를 준비하는 과업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김민정, 양현정, 2015; 이현립 외, 2008).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가리키는데,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개인의 안녕을 위협받게 되는 상태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한다(최보영 외, 2011; 황지영, 박재황, 2015).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박희락(2009)은 진로스트레스를 그 발생 경로에 따라 진로모호성,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 내부갈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진로모호성이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개인이 결정한 진로와 적성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면, 취업압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것이다. 정보부족은 직업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타인의 도움이 결여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가리키며, 외부갈등은 부모 및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내부갈등은 직업 결정에 있어서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곤란을 나타낸다(박희락, 2009). 즉,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에 대한 정서적 측면으로서, 진로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진로 결정수준이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둔 진로 준비행동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스트레스가 불투명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심화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다(강희순, 2010; 고경필, 심미영, 2014; 장형석, 2000) 특히, 지속되는 경제침체,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근래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준비행동의 실천을 어렵게 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가중시키고 있다(김민정, 양현정, 2015). 각 대학의 상담소들도 진로 및 직업 선택 문제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임을 지적했으며(안운정, 서지윤, 2013; 한주옥, 2004), 취업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예비 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일이 ‘취업준비’라고 보고하였다(김명옥, 박영숙, 2012, p. 70 재인용). 무엇보다도, 학업과 병행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대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석, 노안영, 2001).

그러나 진로준비라는 과업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김민정, 양현정, 2015). 스트레스는 사건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Yap & Tong, 2009).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며 제대로 준비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도움이 되어 진로 준비를 열심히 실행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취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도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컨대, 표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이현림과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발달 수준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과업(예: 진로준비행동)을 스트레스로 지각한다는 것이 자원의 부족함을 느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반면, 진로스트레스의 경험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국외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진로탐색을 보다 적극적이며 합리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연구결과(Larson & Majors, 1998)가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김명옥과 박영숙(2012)이 대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고경필과 심미영(2014)의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처럼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요인을 함께 탐색한 연구(김명옥, 박영숙, 2012;

김민정, 양현정, 2015; 이현림 외, 2008; Larson & Majors, 1998)는 소수에 불과하다(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유형을 이해할 때 진로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 개인이 진로 준비행동을 이행하기에 앞서 진로준비라는 과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요구되는 자원과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준비 과정 자체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적 경험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진로상담의 개입 측면에서도 내담자의 주관적 심정을 이해하면, 공감을 가능케 함으로써 상담자-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므로 진로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진로준비행동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진로상담 실제에서 정서와 행동을 통합한 개입 전략의 제시를 가능케 해준다(김민정, 양현정, 2015).

지금까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을 함께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변인 중심 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인중심의 분석만으로는 다양한 경로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유형의 조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 앞서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변인중심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고경필, 심미영, 2014; 김명옥, 박영숙, 2012; 이현림 외, 2008; 표은경, 2009; Larson & Majors, 1998)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예: 진로스트레스의 5개 하위 요인 및 진로준비행동의 3개의 하위 요인)이 개인 내에 여러 수준으로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인중심 분석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을 하나의 변인으로 합산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는 모집단 내에 잠재해 있는 이질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Vondracek, & Porfeli, 200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및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개별반응에 따라 이질적인 잠재유형으로 분류하는 사람중심 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von Eye, & Bogat, 2006). 이를 통해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별 수준이 상이한 여러 잠재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집단별로 맞춤형 개입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며, 특히 진로준비가 저조하며 진로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위험 집단의 양상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중심 접근의 하나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질적인 집단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진로동기는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준비과정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심리적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강명희 외, 2016; 안윤정, 서지윤, 2013). 진로동기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개발을 지속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김보경, 정철영, 2012; Noe, Noe, & Bachhuber, 1990). 보다 구체적으로는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역경에 대처하는 등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구하려는 내적

인 힘을 의미한다(김보경, 정철열, 2012; Guay, Ratelle, Senecal, Larose, Deschenes, 2006). 특히, London(1983)은 진로동기 모델을 통해 진로동기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motivation)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그 방향과 강도, 지속성을 결정하는 힘(Ryan & Deci, 2000)이라고 볼 때, 진로 문제와 관련한 동기도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진로정체감, 동기를 유발하는 진로통찰력, 동기를 유지시키는 진로탄력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London, 1983; Noe, Noe & Bachhuber, 1990).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정체감에 진로가 얼마나 중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혹은 개인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일에 따라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지를 의미한다. 진로통찰력은 개인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인 직업기대, 강점 및 약점을 고려한 자신 및 진로에 대한 지식, 명확한 직업 목표 등을 갖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탄력성은 변화된 상황이나 부정적인 직업 상황에 인내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London, 1983; Lopes, 2006; Noe et al., 1990).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동기는 진로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윤정, 서지윤, 2013). 예컨대, 진로동기 중 진로탄력성과 진로정체성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감과 예민함을 나타내는 성격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탄력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진로관련 학교환경 스트레스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윤정, 서지윤, 2013). 또한, London(1983)은 자신의 진로동기 모델을 통해 진로동기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여건과 상호작용하여 진로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진로관련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탐색과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지성구, 송윤희, 2007), 진로동기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의 방향 설정을 돕고 진로탐색행동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주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강명희 외, 2016; 이현주, 2011). 국내에서는 최근 강명희와 동료들(2016)이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동기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양진희와 김봉환(2008)은 진로정체감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을 명료화시킴으로써 진로탐색 및 준비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진로통찰력의 경우, 진로통찰이 높을수록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크며,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2015). 또한, 진로통찰력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활용, 문제해결 등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윤정, 문윤경, 2014). 진로동기의 마지막 하위요인인 진로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예컨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김지연과 이기학(2014)도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으며, 김봉환(2010)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강현희(2015)는 폴리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로탄력성은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강현희, 2015).

마지막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진로준비행동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봉환, 1997; 안권순, 한건한, 2002; 이제경, 1997), 성별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난 연구(강희순,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가 있는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박정희, 김홍석, 2009; 서유진, 2007)도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 스트레스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희(2012)는 진로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점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취업압력 스트레스와 정보부족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전 연구결과(이경주, 1997)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경주(1997)는 생리적,

심리적인 변화에 민감한 여학생들이 변화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에 남학생보다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숙정과 유지현(2009)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롯해 다양한 진로장벽이 여대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동기(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이 각 프로파일 집단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따라 어떠한 잠재프로파일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진로 동기 수준(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중,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육심리학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75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주요 변수에 미응답한 10명을 제외하고, 남학

생이 307명 (64.6%)이었으며, 여학생은 158명 (33.3%)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23명(4.8%), 2학년이 131명(27.6%), 3학년은 143명(30.1%), 4학년은 168명(35.4%)이었다. 또한,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98명(19.5%), 조형, 디자인 계열이 143명(28.4%), 공학계열이 222명(44.1%), 자연계열이 26명(5.2%), 기타가 10명(2.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보면 맞벌이가 297명(62.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일하는 경우는 137명(28.8%), 어머니만 일하는 경우 24명(5.1%),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무직인 경우는 6명(1.3%)으로 보고되었다.

연구도구

진로스트레스 척도

진로스트레스는 박희락(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사용하였다. 진로스트레스 척도는 진로불확실성, 고용압력, 정보부족, 외적갈등과 내적 갈등의 5개 하위 요인과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박희락(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9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진로불확실성이 .90, 고용압력은 .89, 정보부족은 .87, 외적갈등은 .90, 내적 갈등은 .79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

(1997)이 개발하고 이명숙(2002)이 두 문항을 추가하여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김봉환, 1997)는 자기이해와 직업 정보 탐색에 투자한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평가하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명숙(2002)은 여기에 “지난 몇 개월 간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가리킨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84, 이명숙(2002)의 연구에서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 로 비교적 좋은 수준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진로동기 척도

진로동기는 Noe, Noe와 Bachhuber(1990)의 연구와, London(1993)의 연구, 그리고 Day와 Allen(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김보경(2012)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한 진로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동기 척도는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의 3개의 하위 요인과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정체성은 “지금 나는 미래 직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와 같이 진로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며 요구되는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진로통찰력은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와 같이 진로추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알고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탄력성은 “나는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등 자신의 진로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 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진로정체감 .87, 진로통찰력 .73, 진로탄력성 .79였다.

자료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진로 스트레스의 5개 하위요인(진로모호성,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 내부갈등) 및 진로준비행동의 3개 하위요인(정보수집활동, 도구준비활동, 목표달성활동)의 프로파일이 구성하는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LPA는 집단 내의 이질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중심(person-centered) 접근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다중회귀, 구조방정식 등의 변인-중심(variable-centered) 접근과 달리 차별성을 지닌다(Morin, Madore, Morizot, Boudrias, & Tremblay, 2009). LPA는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할 수 있고, 체계적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연구대상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군집분석과 유사하나, 잠재변인을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최적의 잠재유형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우위를 지닌다(Miller,

Turner & Henderson, 2009).

LPA에서 잠재 프로파일(latent profile)의 수는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도, Entropy 지수 등을 활용하여 결정된다. 적합도 지수로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들 값이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된다(Muthén & Muthén, 2006; Stoolmiller, Kim, & Capaldi, 2005). 통계적 유의도 검증으로는 잠재계층 수가 k인 모형과 k-1인 모형의 비교를 의미하는 LRT(Likelihood Ratio Test, or LMR: Lo, Mendel, & Robin,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되는데, 이들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k-1 모형이 기각되고, k 모형이 지지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잠재 프로파일에 할당된 사례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가 적음을 의미한다(Muthén, 2004). 한편, McCrae, Champman, Christ(2006)는 이러한 통계적 기준만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LPA 결과 산출된 각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진로동기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확

장된 형식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질적 변수 일 때 사용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인들의 값을 통제했을 때, 해당 독립변인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기준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자연상수 e (약 2.718)의 B제곱($e^B = \text{Exp}(B)$)배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e^B 의 값이 1보다 크다면 독립변인이 증가할수록 기준집단 보다는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LPA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우선,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진로모호성은 낮은 수준의 정보수집($r = -.20, p < .001$), 도구준비($r = -.28, p < .001$), 목표달성($r = -.35, p < .001$)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압력의 경우 목표달성($r = -.16, p < .001$) 행동과 부적 상관을 지니고, 다른 진로준비행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 않았다. 한편 높은 정보부족은 낮은 수준의 정보수집($r = -.26, p < .001$), 도구준비($r = -.29, p < .001$), 목표달성($r = -.34, p < .001$)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갈등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갈등은 정보수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지니지 않았으나($r = -.04, p > .05$), 도구준비($r = -.10, p < .05$), 목표달성($r = -.11, p < .05$) 행동과는 약한 수준의 부적상관을 지녔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취업압력이나 외부갈등과 같은 진로 스트레스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동기의 경우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높은 수준의 진로 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의 진로동기와 관련이 있는 부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동기 역시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수준의 진로동기와 관련이 있는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하위요인의 조합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하위 집단을 확인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 지표, 집단의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표 2에서 AIC, BIC, SABIC를 살펴보면, 잠재프로파일 7개일 때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BIC는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에서 두 모형 간 차이가 6 미만일 때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Raftery, 1995), 표본크기가 큰 자료에서는 복잡한 모형에서 AIC와 BIC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스크리 도표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의 개수를 선택하게 된다(노연경, 홍세희, 2012). 그림 1을 살펴보면, 잠재프로파일 수가 5개일 때까지 적합도의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ntropy 역시 잠재

표 1. 주요 변수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명	진로 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진로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진로모호성	1													
2. 취업압력	.50 ^{***}	1												
3. 정보부족	.62 ^{***}	.51 ^{***}	1											
4. 외부갈등	.34 ^{***}	.24 ^{***}	.28 ^{***}	1										
5. 내부갈등	.53 ^{***}	.36 ^{***}	.47 ^{***}	.50 ^{***}	1									
6. 스트레스 총점	.84 ^{***}	.71 ^{***}	.80 ^{***}	.60 ^{***}	.75 ^{***}	1								
7. 정보수집	-.20 ^{***}	.01	-.26 ^{***}	-.01	-.04	-.15 ^{***}	1							
8. 도구준비	-.28 ^{***}	-.05	-.29 ^{***}	.04	-.10 [*]	-.20 ^{***}	.54 ^{***}	1						
9. 목표달성	-.35 ^{***}	-.16 ^{***}	-.34 ^{***}	.01	-.11 [*]	-.28 ^{***}	.55 ^{***}	.66 ^{***}	1					
10. 준비행동 총점	-.32 ^{***}	-.08	-.35 ^{***}	.01	-.10 [*]	-.25 ^{***}	.82 ^{***}	.85 ^{***}	.88 ^{***}	1				
11. 정체감	-.71 ^{***}	-.32 ^{***}	-.53 ^{***}	-.12 [*]	-.29 ^{***}	-.56 ^{***}	.34 ^{***}	.40 ^{***}	.48 ^{***}	.48 ^{***}	1			
12. 통찰력	-.45 ^{***}	-.22 ^{***}	-.43 ^{***}	-.12 [*]	-.20 ^{***}	-.40 ^{***}	.40 ^{***}	.35 ^{***}	.42 ^{***}	.46 ^{***}	.64 ^{***}	1		
13. 탄력성	-.51 ^{***}	-.37 ^{***}	-.46 ^{***}	-.22 ^{***}	-.23 ^{***}	-.50 ^{***}	.31 ^{***}	.28 ^{***}	.42 ^{***}	.40 ^{***}	.60 ^{***}	.62 ^{***}	1	
14. 진로동기 총점	-.66 ^{***}	-.35 ^{***}	-.55 ^{***}	-.18 ^{***}	-.28 ^{***}	-.57 ^{***}	.40 ^{***}	.40 ^{***}	.51 ^{***}	.51 ^{***}	.88 ^{***}	.86 ^{***}	.86 ^{***}	1
평균	3.09	3.65	3.19	2.26	2.73	2.98	3.31	2.85	2.55	2.89	3.24	3.36	3.24	3.27
표준편차	1.05	0.85	0.95	0.74	0.77	0.65	0.86	0.94	0.84	0.74	0.86	0.65	0.67	0.62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6	7	
정보지수	AIC	9187.802	8970.297	8763.874	8666.274	8611.494	8581.282
	BIC	9291.885	9111.849	8942.897	8882.767	8865.456	8872.714
	SABIC	9212.538	9003.938	8806.421	8717.726	8671.851	8650.544
χ^2 검증	LMR	p<.001	p<.001	p<.001	p<.05	p<.05	p>.05
	BLRT	p<.001	p<.001	p<.001	p<.001	p<.05	p<.05
분류의 질	Entropy	0.828	0.752	0.789	0.805	0.780	0.783
분류율(%)	1	72.4	22.3	12.0	17.3	9.7	13.7
	2	27.6	42.1	28.0	9.9	9.5	10.7
	3		26.6	26.9	30.1	15.4	10.1
	4			33.1	34.3	15.4	32.4
	5				8.4	31.4	6.5
	6					18.7	10.9
	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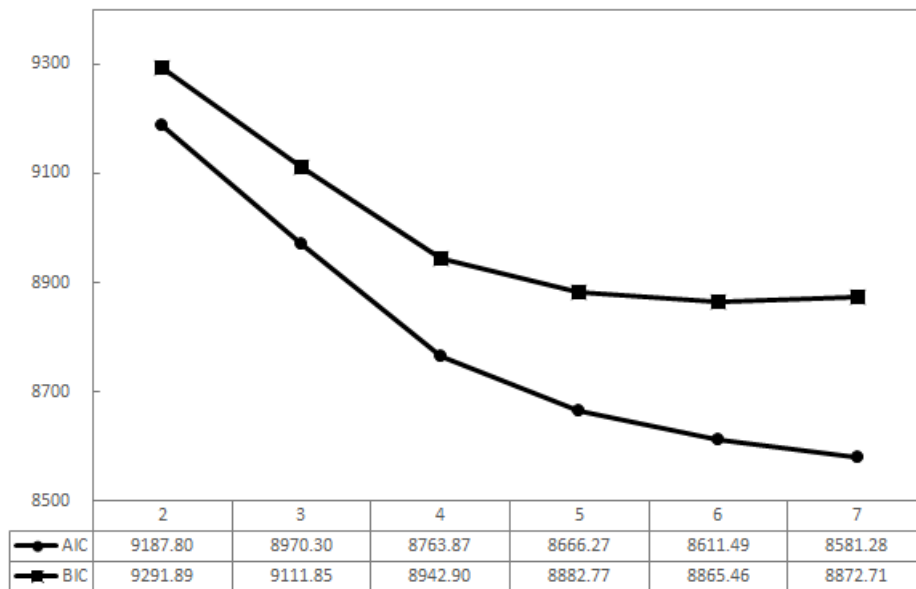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의 변화

프로파일 5개가 0.805로 가장 높았다. 한편 LMR에서는 잠재프로파일 7개일 때 유의하지 않아 6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LRT는 잠재프로파일 개수를 7개로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의 패턴을 확인해 본 결과, 잠재프로파일 6개 이상 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파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여러 적합도 지수 및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와 고유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프로파일 존재 여부에 기반한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합당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5개로 정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라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양상은 5개 하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각 집단에 속한다고 분류된 각 응답자들이 실제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산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류표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각 사례별 분류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예를 들어, 집단 1에 배정된 사람들이 집단 1에 속할 평균 확률은 .789, 집단 2에 속할 평균 확률은 .078, 집단 3에 속할 평균 확률은 .046, 집단 4

에 속할 확률은 .001, 집단 5에 속할 확률은 .000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집단에 분류된 개인이 실제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은 7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프로파일 5개 집단의 잠재평균 추정치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프로파일 1의 경우, 진로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가장 높은 패턴을 보여 진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진로행동적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는 평균 이하 수준의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을 보여 진로에 아직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진로를 대비하는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3은 진로 스트레스 중 취업압력과 외부갈등, 내부 갈등은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요인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평균 이상을 보였다. 즉, 취업 준비 여건이나 부모님 등 외부 요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프로파일 3은 ‘진로 장애 극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4의 경우, 외부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

표 3. 잠재프로파일 할당 확률 평균

집단	비율 (%)	사후 평균 확률				
		1	2	3	4	5
1	17.3	.842	.020	.063	.075	.000
2	9.9	.042	.940	.000	.018	.000
3	30.1	.042	.000	.869	.042	.048
4	34.3	.043	.012	.043	.888	.014
5	8.4	.000	.000	.087	.047	.866

표 4. 집단별 추정평균 및 집단 명칭

프로파일	진로 모호성	취업 압력	정보 부족	외부 갈등	내부 갈등	정보 수집	도구 준비	목표 달성	집단명칭	인원 (%)
1	1.51	2.71	1.77	1.59	1.78	4.08	3.89	3.67	진로 행동 적응	82 (17.3%)
2	2.24	3.14	2.51	1.88	2.24	3.05	2.50	2.25	진로 행동 미분화	47 (9.9%)
3	3.09	3.83	3.20	2.48	2.90	3.80	3.46	3.03	진로 장애 극복	143 (30.1%)
4	3.73	3.81	3.74	2.20	2.81	2.66	2.06	1.91	진로 행동 혼돈	163 (34.3%)
5	4.39	4.51	4.23	3.13	3.82	3.24	2.73	2.26	진로 행동 고뇌	40 (8.4%)

스트레스 요인들, 즉, 진로모호성과 취업압력, 정보부족 및 내부 갈등을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진로 스트레스 요인 중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이 높은 패턴을 나타냈으므로 ‘진로 행동 혼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5는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은 진로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나, 진로준

비행동에 있어서는 프로파일 2나 프로파일 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진로 준비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로 행동 고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의 프로파일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한 자료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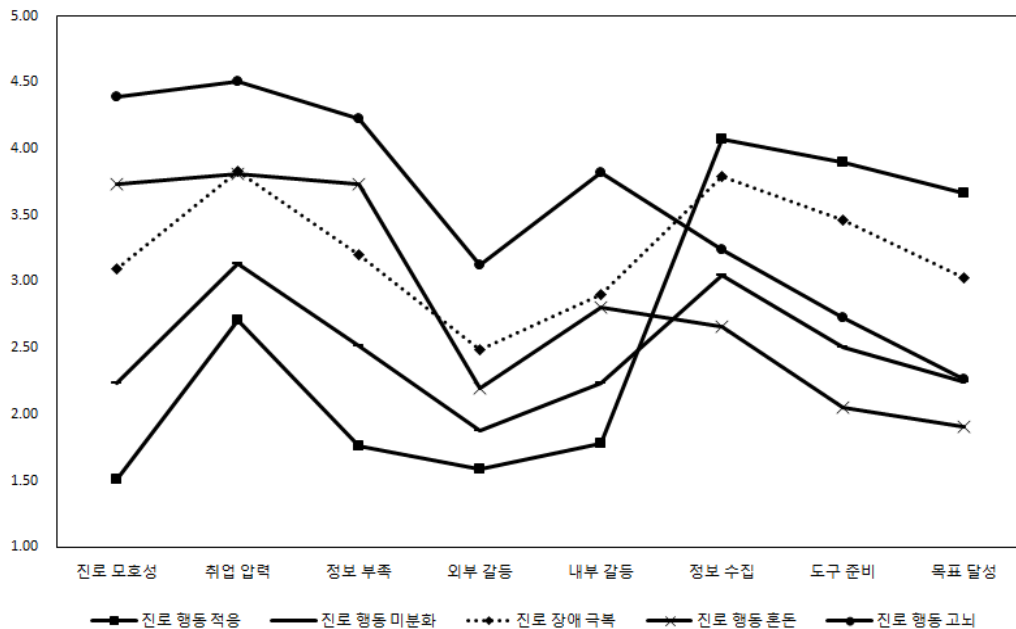


그림 2.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프로파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LPA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모형의 집단 분류 결과에 대해, 진로동기의 세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은 기준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는 다섯 집단 중 진로스트레스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평균에 가까운 유형인 ‘진로장애극복’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 집단의 진로 스트레스나 진로준비행동은 성별, 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로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진로 장애 극복’ 집단에 비해 진로 정체성이 높고($\text{Exp}(B)=14.41, p < .001$), 학년이 높으며($\text{Exp}(B)=2.55, p < .05$), 여학생일 때($\text{Exp}(B)=3.59, p < .05$) ‘진로행동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 장애 극복’ 집단에 비해 진로 통찰력 수준이 낮고($\text{Exp}(B)=.47, p < .05$), 진로 탄력성은 높을 때($\text{Exp}(B)=1.85, p < .05$)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진로행동 혼돈’ 집단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구별하는 요인으로서는 진로 정체성과 학년이 있었다.

즉, 진로 정체성이 낮고($\text{Exp}(B)=.31, p < .001$), 학년이 낮을수록($\text{Exp}(B)=.65, p < .05$), ‘진로장애극복’ 집단 보다는 ‘진로행동혼돈’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 행동 고뇌’ 집단의 경우, 진로 정체성이 낮고($\text{Exp}(B)=.29, p < .001$), 진로 탄력성이 낮으며($\text{Exp}(B)=.41, p < .05$), 학년이 낮을수록($\text{Exp}(B)=.45, p < .01$), ‘진로장애극복’ 집단 보다는 ‘진로 행동고뇌’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집단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각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온 진로동기(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이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표 5.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준집단=진로 장애 극복)

구분	진로 행동 적응		진로 행동 미분화		진로 행동 혼돈		진로 행동 고뇌	
	Exp(B)	p	Exp(B)	p	Exp(B)	p	Exp(B)	p
진로정체성	14.41***	.000	1.59	.064	.31***	.000	.29***	.000
진로통찰력	1.07	.891	.47*	.021	.65	.141	.95	.897
진로탄력성	1.98	.108	1.85*	.044	.71	.210	.41*	.030
학년	2.55**	.008	.70	.103	.65*	.026	.45**	.003
성별 (여자)	3.59*	.021	1.53	.231	1.05	.871	.81	.636

* $p < .05$, ** $p < .01$, *** $p < .001$

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총 5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1은 진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가장 높은 패턴을 보여 진로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진로행동적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진로행동적응 집단은 전체 참여 인원 중 82명(17.3%)을 차지했다. 집단 2는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비교적 적고 진로를 대비하는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으로, 47명(9.9%)이 여기에 속했다. 집단 3은 취업압력이나 부모님과의 갈등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집단으로, 진로장애극복’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43명(30.1%)이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이 집단에 속했다. 집단 4의 경우, 외부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스트레스 요인에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진로준비행동은 다섯 집단 가운데,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진로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이 높은 패턴을 나타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로행동혼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63명(34.3%)이 속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가장 높은 진로스트레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진로 준비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어 ‘진로행동고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진로행동고뇌 집단은 전체 인원 중 40명(8.4%)이 차지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압력 및 외부갈등 하위 요인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진로모호성과 정보부족이 높은 패턴을 보이며 준비행동의 이행은 매우 저조한 ‘진로행동혼돈’ 집단을 합친 비율이 전체의 거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지않은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부모님의 기대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진로준비행동을 애써 이행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진로준비행동을 크게 저해 받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 대학생 개인 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변인이 조합된 양상은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진로행동적응’ 집단은 다섯 개의 프로파일 집단 중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가장 높았다. 반면,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의 경우,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다섯 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편이었는데도 진로준비행동은 미진하였다. 이는 낮은 진로스트레스가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조건 진로 준비행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이 미진한 집단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평균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해나가는 집단이 있다. 예컨대, ‘진로행동혼돈’ 집단은 외부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다섯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로장애극복’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이나 ‘진로행동혼돈’ 집단 보다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진로준비라는 과업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김미정, 양현정, 2015)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와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며 제대로 준비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도움이 되어 진로 준비를 열심히 실행하는 대학생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진로상담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 집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진로행동혼돈’ 집단이나 ‘진로행동적응’ 집단이 보이는 양상은 취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이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 연구들(김주의, 2013; 이현림 외, 2008; 표은경, 2009)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반면에, 진로 및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 연구결과(고경필, 심미영, 2014; 김명옥, 박영숙, 2012; Larson & Majors, 1998)는 비교적 높은 진로 스트레스에도 준비행동을 평균 이상으로 추진했던 ‘진로장애극복’ 집단이나 모든 집단 중 두 번째로 낮은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며 역시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이 공존한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이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으며, 변인 중심보다는 사람중심(person-centered) 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각 집단의 분류 결과에 대한 진로동

기(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섯 집단 중 진로스트레스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평균에 가까운 유형인 ‘진로장애극복’ 집단을 기준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로정체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극복’ 집단에 비해 ‘진로행동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진로정체성이 낮을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진로행동혼돈’ 집단이나 ‘진로행동고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진로정체성은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진로행동미분화’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진로행동혼돈’ 집단과 ‘진로행동고뇌’ 집단 간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정체성은 진로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으면서도 준비행동을 잘 실천하는 집단과 스트레스는 많이 경험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을 평균에 약간 못 미치거나 낮은 수준으로 실천하는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선행연구들은 진로정체감이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진로문제 전반에 대한 자아개념이 명확한 정도를 가리킴을 지적해왔다(이지혜, 2013). 이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몰입하는 정도(Dubin & Cjampous, 1975; Salancik, 1977)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에도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김봉환, 2010)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또한, 진로정체감이 부족할 때,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감과 예민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안윤정, 서지윤, 2013), 진로결정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며(신선임, 김수임, 2013) 자기 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

(조희, 이규영, 2006)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정체감의 형성을 돕는 일은 진로 스트레스 수준은 낮추면서도 준비행동 실천력은 높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 선행될 때, 진로에 대한 모호함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직업 현실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착오를 줄임으로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실제 준비행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통찰력은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을 구분해 주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통찰력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낮고 준비행동 실천도 낮은 ‘진로행동미분화’ 집단보다는 평균 및 그 이상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진로준비행동은 활발히 실천하는 ‘진로장애극복’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진로통찰력이 높을수록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크며,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진희,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진로통찰력은 진로동기의 세 가지 핵심 하위 영역 중,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되어 왔는데(London, 1983; Noe, Noe & Bachhuber, 1990), 본 연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즉, 진로문제에 대한 근심도 없고 준비도 저조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진로통찰력의 부족이 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구하려는 내적인 힘을 활성화시키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진로통찰력이 ‘진로행동혼돈’ 집단이나 ‘진로행동고뇌’ 집단처럼 진로준비행동은 유사하게 저조하

지만 ‘진로행동미분화’ 집단보다 진로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경험하는 집단들의 구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외면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유사하게 미진하여도 진로문제에 대한 개인의 정서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진로통찰력 수준이 영향력을 미침을 시사해준다. 진로통찰력이 자신의 강점 및 약점의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직업기대와 구체적인 직업 목표 등을 수립하는 정도를 의미(Noe et al., 1990)한다고 할 때, 이러한 역량의 부재가 자신의 정서적, 행동적 두 측면 모두에서 진로문제에 대해 몰입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양상과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극복’ 집단에 비해 ‘진로행동미분화’ 집단에, 낮을수록 ‘진로장애극복’ 집단보다 ‘진로행동고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 탄력성이 진로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성 있는 적응력을 가리킨다(Noe et al., 1990)고 할 때, 본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행동 미분화 집단에 속한 확률이 높았던 데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예: 자신의 진로문제로부터 정서적으로 여유와 거리를 둬)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면서 바로 준비행동을 실천하기 보다는 이행을 미루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진로탄력성의 부족은 전체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준비행동을 이행하면서도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진로행동고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탄력성의 부재는 부정적인 직업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는 정서적 힘 내지 정서조절 능력(안윤정, 문윤경,

2014)을 약화시켜 비슷한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행하는 데에도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흥미롭게도 진로탄력성은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비교하여 진로스트레스는 덜 받고 준비행동은 활발히 실천하는 ‘진로적응행동’ 집단의 구분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행동’ 집단이 기준집단인 진로장애극복 집단과 유사하게 진로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진로준비행동 실천력이 높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진로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김봉환, 2010; 김지연, 이기학, 2014)이나, 진로탄력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진로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선행연구(강현희,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의 영향력을 ‘진로장애극복’ 집단을 기준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진로행동적응’ 집단이 유일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수록 ‘진로행동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난 연구(강희순,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며 낮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정화 외, 2012)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 점수를 보임을 확인한 연구(이상희, 2012)나 취업압력 스트레스와 정보부족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이전 연구(이경주, 1997)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학년 변인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진로장애극복’ 집단에 비해 ‘진로행동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저학년일수록 ‘진로행동혼돈’과 ‘진로행동고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진로행동미분화’ 집단과 ‘진로장애극복’ 집단 간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실천이 강해진다는 선행연구(김봉환, 1997; 김정화 외, 2012; 손은령, 김연중, 2010; 이재창, 박미진, 김지희,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체계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하기보다는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고학년, 특히 4학년에 급박하게 이행하고 있다(손은령 외, 2005).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추세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진로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재확인 시켜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스트레스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며 준비행동을 가장 활발히 실천하는 ‘진로행동적응’ 집단을 구분해주는 데 진로정체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 있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자아상을 명확하게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이지혜, 2013),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을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야할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술을

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안정된 자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진로에 대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과 진로가 자기 삶의 일부임을 수용하고 책임감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 준비행동이 매우 저조한 ‘진로행동 미분화’ 집단과 ‘진로행동 혼돈’ 집단의 경우에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자신이 처한 여건과 조율하며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진로통찰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세운 진로 목표가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지, 실천이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셋째, 진로 행동고뇌 집단과 같이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지만 진로준비행동을 실천해나가려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탄력성을 강화하는 상담과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진로 탄력성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적응하는 능력인 만큼(London, 1997), 최근의 취업환경에 더욱 필요한 역량이다. 즉, 진로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불리한 여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과 변화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진로준비과정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작은 성공경험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강현희, 2015).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 3개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비롯한 사람중심 접근의 경우,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학교 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할 경우,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또다른 잠재프로파일 집단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지역(예: 수도권 거주 대학과 지역민 중심의 지방거주 대학) 및 학교특성(예: 전문대와 일반대학)이 집단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차이에 대한 참여 대학생의 전공의 영향력은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전공영역 별로 진로개발 및 취업 경로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의 특성에 주목하여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유형의 차이, 그리고 진로동기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도 출된 잠재 집단의 결과가 상담실제에 보다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 대학생 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로준비 과정에 대한 참여대학생들의 내적 경험을 세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 외에, 진로준비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의 파악이 가능해지며,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진로동기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진로지도와 상담

에 실제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자연과 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동기기간의 구조관계 규명: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2), 27-47.
-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83-104.
-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 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민정, 양현정 (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유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95-110.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정철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49-71.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 417-442.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진희 (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0(1), 47-56.
- 노언경, 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학연구*,

- 23(3), 51-76.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 행동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선임, 김수임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결과기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5), 2681-2697.
- 안권순 한건한 (2002). 청년기의 개인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안윤정, 서지윤 (2013). 대학생의 일희망과 진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55-81.
- 안윤정, 문윤경 (2014).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변화인식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35-161.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숙정, 유지현 (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재경 (200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 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 39-59.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현주 (2011). 진로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7(4), 95-116.
- 장형석 (2000).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전략.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0, 101-115.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

- 슬링센터, 33, 85-101.
- 조희,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학회지*, 20(2), 163-173.
- 지성구, 송윤희 (2013). 대학 저학년생의 직업지향성, 경력 초점, 전공 만족도 및 취업준비도 분석. *경영교육연구*, 28, 573-598.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표은경 (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박재황 (201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 73-101.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 317-332.
- Day, R., & Allen, T. D.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égé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72-91
- Dubin, R., & Champoux, J. E. (1975). Workers' central life interest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65-174.
- Gordon, K. A. (1995). The self-concept and motivational patterns of resilient Afric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1, 239-255.
- Guay, F., Ratelle, C. F., Senécal, C., Larose, S., & Deschê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Larson, M. L., & Majors, M. S. (1998). Application of the coping with career indecision instrument with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163-17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York; Springer.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 767-778.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 25-38.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opes, T. (2006).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career motiv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graduate students by age and gen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cLachlan, G.,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John Wiley.
- Miller, H. A., Turner, K., & Henderson, C. E. (2009). Psychopathology of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males and fema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 778-793.
- Morin, A. J. S., Madore, I., Morizot, J., Boudrias, J. -S., & Tremblay, M. (2009). Multiple Targets of workplace affective commitment: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workplace affective commitment multidimensional questionnaire.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59, 45-75.
- Muthé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 Muthén, L. K., & Muthén, B. O. (2006). *Mplus*.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07). *Mplus User's Guide* (5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3.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111-163.
- Salancik (1977). Committeeman and the control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d belief. In B. M. Staw & G. R. Satanic (Eds.), *New directions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1-54). Chicago; St. clair.
- Schwart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toolmiller, M., Kim, H. K., & Capaldi, D. M. (2005). The course of depressive symptoms in men from earl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Identifying latent trajectories and early predicto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 331-345.
- von Eye, A., & Bogat, G. A. (2006). Person-oriented and variable-oriented research: Concepts, results,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3), 390-420.
- Vondracek, F. W., & Porfeli, E. J. (2002). Integrating Person- and Function-centered approached in career 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86-397.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03-515.
- Yap, A., & Tong, E. M. (2009). The appraisal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rebound effect: Cognitive appraisals and the rebou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9), 1208-1219.

원 고 접 수 일 : 2016. 07. 04.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10.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8. 25.

The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Shin Hae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dentified latent profiles i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how career motivation and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nd grade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latent profiles. A total of 475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M-Plus 7.0 program.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five types of latent profiles: adaptive career behavior type, unconcerned career behavior type, overcoming career behavior type, confused career behavior type, and struggling career behavior type. Regarding career motivation, career identity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cing factor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profiles, along with career insight and career resilience. Also, sex and grade affected several group differenc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motiv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